

오늘은 세상의 온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1:30에 동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청파성서학당은 쉽니다)

추석 가정 예배를 돕기 위해 순서지를 만들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1부씩 가져가십시오. (로비에 마련)

영월 친환경 포도 주문 예약 받습니다. 포도 25,000원(5kg) 포도즙 38,000원 산머루 18,000원(2kg) 산머루즙 38,000원. 1차 판매 9월 11일, 2차 9월 25일입니다.

: 명절 연휴 먼 길 오갈 때 안전운전, 정속 주행하시고, 상차림은 과하기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딤후 4:1-8
----------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목사	하현철 장로	문홍일 집사

9월	1부 영접위원	홍성식 이유리		
	1부 헌금위원	권미정		
	2부 영접위원	하현철 송동준 강세기 한상균 이소애 정경례 한양미		
	2부 헌금위원	김정민 안홍숙		

오늘 식당 봉사 : 정경례 강금연 박운숙 김선영 이오복 조장형 박재영  
 다음 주 식당봉사 : (없음-추석연휴)  
 오늘설거지봉사 : 3여선교회 (56-60세)  
 다음주설거지봉사 : (없음-추석연휴)  
 커피 판매 봉사 : 1여선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의  
주님의  
오  
묘  
상  
의  
소  
시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창조절 제2주】

인도 1부 : 신진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주님 나라는(×3)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17. 사랑의 하나님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맑고 파란 가을하늘이 어느새 미세먼지로 가득해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빠르게 욕심으로 변질시키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쌓고 채우려하기보다 날마다 비우고 덜어내길 힘쓰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루하루 더 맑고 밝게 사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어리석은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변 나라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길로 나오지 않고 고립을 자처하며 핵개발에만 몰두하는 북한의 지도자를 꾸짖어 주십시오.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며 파국으로 치닫는 걸음을 되돌려 대화하는 자리로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렘29:13,14a ..... 인도자

♣ 교 독 문 ..... 51. 시편 118편 ..... 다 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 함께

2부대표기도 ..... 김재흥 목사

2부응답송 ..... 찬양대

2부찬양 ..... 397. 주 사랑 안에 살면 ..... 다 함께

♣ 성경봉독 ..... 눅 15:1-10 ..... I. 인도자

II. 장기욱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독자

다 함께

찬 양 ..... 인간의 노래 ..... I. 하모니동호회

주 날개 밑 ..... II. 찬양대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고속이	곽정자	김광일	이부용	김근종	정옥영	김명순	이교영	김성순	김영순
김영희	김윤수	박상호	김재환	김진선	김정길	김최숙화	김혜진	김동훈	김유경
남선옥	문복순	민지회	박규석	박경선	박석희	조항미	박시내	박인혁	박창운
허정윤	방민배	배재경	이수정	백묘현	서수진	서정순	서해나	안현숙	양상철
박재란	오진호	노순옥	왕수명	원용일	최현선	서윤우	윤영미	이계선	이성범
이광섭	김수연	이국노	김민화	이동천	이미휘	이민범	공재량	이상준	이성범
권현숙	이완구	이용현	최연실	이우엘	이인웅	김재광	정재기	임선양	신현숙
임호성	장영숙	정두리	정연희	정완수	김재광	정종삼	정종삼	정지영	정진호
양순임	정민경	조관행	홍선희	조병무	송양진	조순덕	최다미	최옥분	최원남
김희천	최윤선	최재욱	이수정	최철수	곽권희	한상익	정영선	허성호	진은혜
허재희	현진	홍순구	안홍숙	무명1					

### 감사헌금

김성순	김애경	김용진	박효선	김은종	김창숙	김재흥	최희영	김지현	김해선
문복순	박재영	이현정	방문성	박해경	손숙경	오진훈	노순옥	윤수진	은종인
이광재	이순미	이은혜	이자애	이지웅	임광호	정수만	김경미	정효진	조영순
최미선	최미자	황경순	김극	무명19					

### 녹색꿈헌금

김향자 이한림 김명희 무명4

### 생일감사헌금

김정근 문홍일

## · 집 회 안 내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동호회	섬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 인간의 노래

깊은 상처 안고 사는 지친 어깨에 작은 눈길 건네는 친구는 있는가  
 고통 속에 누워 서러웁게 식어가는 차가운 손 잡아줄 동지는 있는가  
 희망의 날개 아래 어둔 슬픔 가두고 잊혀진 우리들의 기쁨을 노래하리  
 나는 부르리 희망의 노래를 함께 부르자 인간의 노래

고단한 삶의 아픔 미소 뒤에 감추며 함께하는 동지들을 믿고 있는가  
 앞서 스러져간 소중한 벗들을 가슴 뜨겁게 기억하며 싸우고 있는가  
 모두가 미소 짓고 노래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 땅에서 이루자  
 아픔을 함께하고 기쁨을 나누며 한 걸음씩 나아가자 인간의 길로  
 삶의 괴로움을 날개로 바꾸어 생명의 송고함을 노래에 가득 실어  
 나는 부르리 평화의 노래를 함께 부르자 인간의 노래

살아서, 살아서 끝내 살아서 살아서 살아서 끝끝내 살아내어  
 나는 부르리 자유의 노래를 함께 부르자 인간의 노래  
 살아서 살아서 끝내 살아서 살아서 살아서 끝끝내 살아내어  
 나는 부르리 인생의 노래를 함께 부르자 인간의 노래

- 야마노키 다케시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신진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장로 : 한완식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강석남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김진선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뉘노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뉘노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뉘노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말씀	.....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	이범석 목사
거듭기도	.....			다 함께
2부찬양	.....	390. 예수가 거느리시니	.....	다 함께
♣ 봉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 함께
♣ 봉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나만의 즐거움에 매몰되어 살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사십시오.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기쁜 일에 동참하며 사십시오.			
다함께:	아멘. 나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며 살겠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는 일에 마음 쓰며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 사람의 돌아움을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복	.....			이범석 목사

믿음으로 읽는 글

## 마더 테레사의 기도와 영적 어둠

지난 9월 4일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선종 19년 만에 성인으로 선포한 인도 콜카타의 테레사 수녀(1910-1997)는 ‘빈자의 성녀’다. 한데 필자는 부끄럽게도 마더 테레사의 활동에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못했다.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는 삶은 어려운 일이고 그럴 자신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이기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마더 테레사는 내게 빈자를 위한 활동보다는 기도의 의미에 대해 처음으로 깊이 생각하도록 해 준 분이다. 가톨릭 신자가 된 지 10년 가까이 됐지만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가 중요한지도 모르던 2007년 가을이었다. 어느 날 테레사에 대해 쓴 글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가 운영하는 사랑의 선교회의 한 수녀가 돌봐야 할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이 너무 많아 정신이 없을 정도니 기도하는 시간을 반으로 줄여 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그녀는 오히려 그때까지 기도했던 시간보다 배를 늘려 2시간 동안 기도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것이었다.

그즈음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느낀 것 같다. 번잡한 일상 속에서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느님 자리는 없어지고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도 행복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어렵듯이 안 것 같다.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그에 따라야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좋은 결실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다. 물론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뒤 가톨릭 성인들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알게 된 마더 테레사의 영적 어둠의 체험은 내게 깊이 각인됐다. 1979년 노벨평화상을 받고, 선종한 지 6년 만에 복자가 되고, 성인으로 선포되기 전에 20세기 가장 위대한 성녀라고 불렸던 그녀가 ‘영혼의 어둠 밤’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겪었다는 얘기를 처음 접했을 때는 잘 믿어지지 않았다. ‘살아 있는 성녀’로서 당연히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며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겨내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로레토수도회 수녀였던 테레사는 1946년 9월 10일 기차여행에서 ‘부르심 속의 부르심’을 느꼈다고 한다. 당시 콜카타의 페르디난트 페리에 대주교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테레사는 기도 중에 “네가 도와주지 않겠느냐”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의심과 두려움으로 답하자 하느님

은 단호하게 “네가 날 위해 이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말씀하셨다. 테레사는 그 뒤 여러 주일 하느님과 심오한 친교를 누렸다고 한다.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하기로 한 테레사는 수녀원 밖에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선교회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었다. 그 직후부터 선종할 때까지 하느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은 어둠을 체험했다. 그녀는 영적 지도자 중 한 분에게 보낸 편지에서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자신의 고통이 무의미해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페리에 대주교에게 “하느님이 나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느님이 하느님이 아니시고, 하느님이 진짜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끔찍한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마더 테레사는 시간이 흐르면서 영적 지도자의 도움으로 자신의 고통을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기회로 바라보고 어둠을 사랑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상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어둠과 고통의 한 부분, 아주 작은 한 부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쓸모없다는 느낌을 통해 고통받고 있는 가난한 이들에게 더 깊이 동화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 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성녀도 저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성녀 역시 인간이구나”하는 위로감 같은 것도 느꼈다. 성녀가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뵈고자 해도 뵈지 못했더니 우리 역시 주님을 뵈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물론 믿음이 약한 평범한 신자가 성녀의 영적 고귀함과 어둠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시성식과 미사를 집전한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10만 명이 넘는 신자와 각국 대표단과 취재진이 몰린 가운데 “테레사 수녀는 세계의 부강한 이들에게 ‘그들 자신이 만들어낸 빈곤이라는 범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제 전 세계의 양극화와 빈곤은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술선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내주지 않으면 지구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빈곤은 힘센 자들이 만들어 낸 범죄다. 50년 동안 빈자와 고아, 병자들과 삶을 함께한 어머니 ‘마더’ 테레사의 깨우침과 호소가 지금이라도 큰 울림을 던졌으면 한다.

- 황진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중에서